

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기술동맹 확대

-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및 경제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함.
 - 양 정상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연내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함.
 -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이 언급한 기지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한국은 기존 합의 존중 입장을 확인함.
- 경제 협력 측면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해소되고, 양국 간 산업 협력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진출이 추진될 예정
- 기술 동맹 측면에서는 원자력·우주항공·핵심광물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총 11건(계약 2건, MOU 9건)의 합의가 체결됨.
 -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미국 엑스에너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에 나서며,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 배터리,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될 전망

한-미 정상회담 계기 MOU·계약 체결 내용

분야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체결 내용
조선	HD현대, 한국산업은행	서버리스 캐피탈	공동투자 펀드 조성
	삼성중공업	비거 마린 그룹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 조선서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	페르미 아메리카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페르미 아메리카	텍사스 AI 캠퍼스 원전·화학·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한국수력원자력	센트리스	우라늄 농축 공장 설비 지분 투자
항공	대한항공	보잉	보잉 항공기 103대 신규 도입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
LNG	한국가스공사	트라피구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 연 330만 톤 신규 도입
		토탈에너지스	
핵심광물	고려아연	록히드마틴	2028년부터 게르마늄 장기 공급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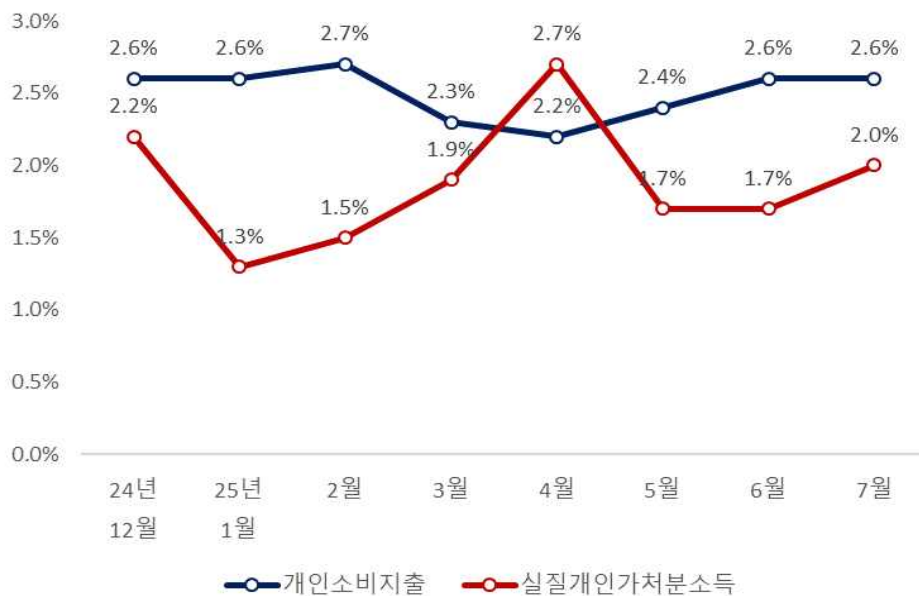
*출처: 대통령실('25.08.26), 연합뉴스('25.08.26)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증가, 가처분소득 완만한 개선 | 2025-08-29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2025년 8월 29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7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함. 이는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내구재 중심의 소비 확대가 주요 요인임.
 -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은 미국 가계의 소비 규모를 보여주며, PCE 물가지수는 물가흐름을 나타냄.
- 같은 달 명목 개인소득과 가처분소득(DPI)은 각각 전월 대비 0.4% 늘었으며, 실질 개인가처분소득은 전년동월 대비 2.0% (전월대비 0.2%) 증가하여 소비 여력이 일부 개선됨.
 - 가처분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소득
- 개인저축률은 7월 4.4%로 2개월 연속 같은 수준
 - 개인저축률은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저축 비율
 - 2025년 4월 5.0%보다는 낮지만, 개인소비지출 확대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7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 근원 PCE는 2.9% 상승하여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함.
 -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음.
- 연준은 최근 고용 둔화 조짐(주간브리프 Vol. 30)과 물가 상승 둔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 중임.

■ 2024년 12월~2025년 7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및 실질가처분소득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국내 경제 동향

● 2025년 8월 소비자·기업심리지수 상승 | 2025-08-26, 2025-08-27 한국은행

- 2025년 8월 26일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심리지수(이하 CSI)가 111.4로 전월 대비 0.6p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음.
 -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장기평균치(100)를 웃돌며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낙관적인 수준 유지
- 세부 지표를 보면 현재경기판단CSI가 93으로 전월 대비 7p 크게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향후경기전망CSI와 취업기회전망CSI는 각각 100과 92로 두 전망 모두 전월 대비 6p 하락해, 경기 전망과 고용 기대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8월 27일 한국은행은 8월 기업심리지수(이하 CBSI)가 전산업 기준 91.0으로 전월 대비 1.0p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제조업 8월 CBSI는 93.3(전월 대비 +1.4p), 비제조업 8월 CBSI는 89.4(전월 대비 +0.7p)로 모두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하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과 소비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8월 중 94.6으로 전월 대비 1.7p 상승하여 전체적인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생산·판매 활동에서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주체 전반의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2024~2025년 8월 소비자·기업심리지수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제9차 도쿄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9) 개최 | 2025-08-22 농림수산성

- 일본 요코하마에서 2025년 8월 20일~22일 개최된 제9회 도쿄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 세미나와 국제기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함.
 - 도쿄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는 1993년부터 3년마다 일본 정부, 주요 국제기구, 아프리카 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회의로 아프리카 개발 및 경제협력을 논의
- 농림수산성은 5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의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이 현지 정부나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국가의 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
 - (서아프리카 식량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WFP와 농림수산성의 도전)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농림수산물성이 공동으로 그동안의 협력 성과, 신규 사업 방향성, 서아프리카 시장의 민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
 - (아프리카의 농업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기업과의 공동가치 창출) 아프리카에서의 일본 기업 사업 현황 논의
 - (일본 기업의 신기술을 활용한 절수형 쌀 재배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일본 기업이 개발한 농업 자재를 활용한 절수형 쌀 재배의 실증성에 대한 논의
 - (아프리카의 산림 감소 및 황폐화 억제를 위한 공동가치 창출과 분야간 연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개발한 산림 감소 억제 대책과 현지 정부 관계자의 경험 공유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함께 키우는 미래)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과 차세대 농업 연구 인재 육성에 대한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논의
- 또한, 농림수산성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과 민간부문·소규모 생산자 제후 강화 이니셔티브 중심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신규 지정, 전 세계 100곳 돌파 | 2025-08-2 FAO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이탈리아와 일본의 농업 시스템을 새롭게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지정하며, 전 세계 GIAHS 지정 지역 수가 100곳을 넘었다고 발표함.
 - GIAHS는 전통적 농업 활동이 생물다양성 보존, 토지·수자원 관리, 지역사회 문화 전승과 결합된 경우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운영
- 일본에서는 니가타현 요네자와 지역의 '전통 쌀 재배 및 물 관리 시스템'이 신규 지정됨.
 - 다층적 물 관리 구조를 바탕으로 한 논농사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쌀 품종 다양성과 자연 경관·생태계 보전이 동시에 실현되고 있음.
 - 지역 공동체가 물 관리 협동조직 구성하여 세대를 이어 유지해 온 점이 농업·환경·문화적 가치를 통합한 사례로 평가됨.
- 이탈리아에서는 라치오 주의 '전통 올리브 경관 관리 시스템'이 신규 지정됨.
 - 수백 년 이어온 올리브 재배와 경사지 관리 기술이 토양 유실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 식문화 계승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받음.
- ❖ 한국 역시 제주 밭담, 하동 전통 차농업 등 5곳이 GIAHS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일본·이탈리아 사례는 농업유산의 단순 보존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협동조직 유지, 수자원·경관 관리 기술과 같은 전통 지식의 현대적 활용이 중요함을 시사함.

국내 농업·농정 동향

●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의 공동성명 채택 | 2025-08-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시스

- 2025년 8월 9~10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이 참석해 '농식품 혁신 확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주제로 논의하고,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번 회의에서는 ①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점검, ②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 확정, ③ 회원경제체 간 혁신 사례 공유, ④ AI 활용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됨.
 -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중간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회원국들이 지난 4년간 이행한 성과를 종합 분석
- *디지털화, 생산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민관 파트너십 등 6대 분야에서 전반적 진전이 있었음.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농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여성·청년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확인됨.
-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 확정) 향후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규정과 피드백 체계 정비 및 확정
- (혁신 사례 공유) 스마트농업 도입, 농촌 활성화 정책,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등 회원국별 혁신 경험 소개
- (AI 협력 방안) 농식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향과 국제 공동연구 필요성 논의
- 회원국들은 이번 성명이 성과와 과제를 균형 있게 담았다고 평가하였음.
 - 필리핀은 디지털 인프라와 중소기업 지원, 여성 참여 확대 등 자국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함.
 - 태국은 이번 성명이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러시아는 식량안보와 글로벌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향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 중국은 조사·평가 과정의 일관성을 높이 평가하며, 정책적 연속성을 장점으로 꼽음.
 - 칠레는 생산성·지속가능성·회복력 등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접근을 환영함.
- 향후 APEC 실무회의를 통해 이번 성명이 구체적 실행 과제로 이어지도록 후속 협의를 주도할 계획임.
- ❖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로드맵 중간 점검 보고서를 공식 발간하였음. 이를 계기로 디지털 농업 확대, 농촌 활성화,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을 국내 농정의 중점 과제로 삼고, APEC 협력과 연계하는 방안의 마련과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